

탈원전·공수처·최저임금...사안마다 '시끌'

국정감사 5일째

국방위 전작권 전환 쟁점 여, 면세점 부당 선정 추궁 여야 상대정권 실책 부각

국정감사 5일째를 맞은 16일 여야는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격돌했다.

법제사범위·과기정통위·국방위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된 이날 여야는 적폐와 신적폐 공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최저임금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위·복지위·기획재정위 등 대부분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붙여놓고 피켓 시위를 벌임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정회 소동까지 일었다.

국회 법제사범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한 공수처 정부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반 토막 남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잇달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가 결국 야당을 향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김현아, 나홀로 'No 피켓'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력도시보증보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과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문구를 의원의 노트북 덮개에 붙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주로 공론화 위원회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작권전환(전작권) 전환 문제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거듭했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복지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대책과 화장품 산업 인제 육성 지원책 등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야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상대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문재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 복당 이뤄질 듯

전남도당 19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9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390명을 대상으로 복당 심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복당 심사에서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당 신청을 강 군수는 2차례의 복당 심사에서 모두 보류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당은 보류 처분 사유로 강 군수가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뒤 탈당한 경험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심사 기준에 따른 엄격한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재심 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19일 열린 복당 심사에서 현역 단체장인 강 군수의 복당 허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당 안팎에서는 강 군

수와 함께 복당 신청을 했던 김성 장흥군수의 경우 한 차례 보류 후 입당을 허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강 군수의 복당 허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중앙당 고위 당직자가 비공식적으로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과 입당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는 한 복당 허용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군수는 "다수의 군민과 다수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면서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은 민주당과의 관계, 대선 당시 행정, 본선 경쟁력 등 3대 복당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내부 압초 만난 국민의당 혁신위

시도당·지역 위원장 일괄사퇴 수용 놓고 논란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차당위원회가 제안한 전국 시도당·지역 위원장 일괄사퇴안과 관련, 당내에서 논란이 거세다. 제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16일 최고위원-의원 연석 회의를 열어 1시간 30분여에 걸쳐 제2차당위가 내놓은 시도당·지역위원장 전원 사퇴안과 대안 등에 관해 토론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 후에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페어 5·18 사진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현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발언들을 했다"며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앞으로) 조금 더 범위도 확대하고 당내 공론화 과정을 계속 진행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당

위의 혁신 요구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당이 결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이 중 8~9명이 찬성을, 나머지 4~5명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반대 측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혁신안을 내놔야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공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2차례 더 의총을 여는 동시에 지도부나 각급 위원장 모임 등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김동철 "북에 해킹된 작계 5015 폐기...다시 수립해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한군의 해킹으로) 유출된 '작계(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새로운 작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9월 '작계 5015' 등 군사기밀들이 북한에 넘어간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나"라며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춘다 해도



작전이 노출되면 무용지물이고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의 손에 들어간 작계에 오히려 우리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작계 5015는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새로운 작계 수립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경진, LS전선 원전비리 속죄금 천억원 출연합의 받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LS전선 명노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원전비리 속죄금 성격인) 1000억원을 대한 연차별 출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는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분납방식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LS그룹 측은 원전 안전과 연중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김형호기자 khh@

정인화 "GMO 안전표시제로 국민 선택권 보장"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식용 GMO 농산물 수입량은 총 961만t으로 옥수수는 506만t, 대두 450만t 등이다"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국민에게 온전히 알리는 'GMO 안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해 국민 알권리와 식품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총 961만623t의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했다. 업체별로 보면 CJ가 326만 9380t(34.0%) 1위, 대상이 209만4384t(21.8%)으로 2위, 사조해표가 158만 3547톤(16.5%), 삼양사 147만9,225t(15.4%) 순이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가 505만6780t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450만894t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김형호기자 khh@

바른정당 내분 폭발...보수통합 주춤

통합파 vs 자강파 국감장서 설전...국감기간 집단행동 않기로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의 내분 이 심화하고 있다.

자강파인 진수희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은 바른정당이 언제 깨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한 달 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주도한 그분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당내 통합파를 겨냥했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감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통합파로 분류되는 주 권한대행은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11월 조기 전대를 누가 주장했다는 것이냐. 제가 내년 1월 중순에 (전대를) 하자고 했을 때 당에서 하자고 한 게 누구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악화하자 통합파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탈당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h2 style="text-align: center;">상무지구 상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시청 1분. 금융가대로변</p> <p style="text-align: center;">현대아파트 후문 앞</p> <p style="text-align: center;">8층 중 4층 (45평)</p> <p style="text-align: center;">내부깨끗 / 주차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보 2천 월 100만</p> <p style="text-align: center;">→ 매가 1억9천 (웅7천)</p> <p style="text-align: center;">직매 010-6670-9800</p>	<h2 style="text-align: center;">수기동 상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천변로 전망최고</p> <p style="text-align: center;">20층 중 6층</p> <p style="text-align: center;">45평 (고급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p> <p style="text-align: center;">보 1천 월 60만</p> <p style="text-align: center;">매가 9천8백 (웅5천)</p> <p style="text-align: center;">직매 010-6670-98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 (주)대신경매</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농성동 (상가건물) 토지 42평 건물 51평 농성역/돌고개역 3분 (코너) 자동차정비소 운영중 감정가 2억 6천 → 최저가 2억 6천 2)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3) 남구 봉선동 (2층 상가건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억 → 최저가 46억 4)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5) 동구 충정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6)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지 2,546평 건물 1,73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 <p style="text-align: center;">010-7384-78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p> <p style="text-align: center;">(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p>
---	--	--	---